

전남 농민수당 올리려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반토막'

올해 228억→내년 114억원으로 급감

전남 농민들 분통…도청 앞서 집회
道 “지속가능 범위 지원 방안 마련”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절반으로砍감, 지역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농민단체는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농업 소득은 10년째 저자리다. 지금보다 농업 예산을 2배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는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평계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값 하락과 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전남도가 2001년 전국 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9일 전남도의회에서 집회를 열어 내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절반으로砍감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초로 도입했다. 지금 상한을 2㏊로 한정하면서 지역 중소농들에게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를 주고 있다.

당초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으로 올해와 동일한 228억원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매년 60만원씩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624억원으로 89억원을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조정, 228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절반이砍감됐다.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올해 기준 ha당 평균 61만원씩 총 120만원 가량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ha당 평균 30만5천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내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

수당 확대 지원, 쌀 가격 회복, 시·군 재정 부담 가중,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경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농가 보장이 두터워진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 여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점과 벼 외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에서도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져왔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나 변화된 농경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 SRF 운영비 중재심판 ‘빈손’…장기화 우려

광주시, 지난달 중재원에 공식 이의신청
중재원, 판단 유보…“검토하겠다” 답변만
시·포스코, 감정기관·방식 이견만 재확인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광주시의 ‘신청금액과 대체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기준 감정 절차 논의만 이어가면서 중재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중재원에서 열린 8차 중재심리에서 광주시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중재판정부는 “중재법상 중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중재 도중 판단하거나, 최종 판단할 때 동시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는 판정부의 재량인 만큼 검토해보겠다”며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엔씨가 제기한 중재 신청

금액이 기준 78억원에서 최대 2천100억원으로 증액된 지난 5월 결정에 대해 구두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번 심리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심도 있는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판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법원에 권한심판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추가 대응도 어려워졌다.

이번 심리는 약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핵심 쟁점은 감정 절차 논의만 머물렀다.

이날 심리에서 광주시와 포스코이엔씨는 감정기관 선정, 감정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다음 심리에서 양측이 각각 추천한 기관을 검토한 후 최종 기관과 방식 등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계속되는 중재심리에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재 심판의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행 중재법상 심리 종료 기한이 없는 데다, 폐기물 감정은 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이 크게 달라 감정 기간 자체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 횟수와 방식 역시 양측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중재판정부의 판단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는 중재 대응과 별도로 포스코이엔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SRF 기동 중단과 성능 미달로 발생한 잔여 폐기물을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 매립장 수명이 단축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지만 유사 사례가 없어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과도한 신청 금액 증액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만큼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루씩 끝났다”며 “중재판정부가 다음 심리에서 감정기관 관련 의견을 받겠다고 한 만큼 변호인단과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9차 중재 심리는 내년 1월19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다. /변은진 기자

“광주 미세먼지 정보 문자로 알려드려요”

보건환경研, 대기질정보 무료 문자서비스

-613-76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경보 알림과 시민 행동요령을 무료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대기 정체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전역에 대기측정소 11개소를 설치해 24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애어코리아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매 시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알림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중앙정부 재난문자와는 별도로 주의보·경보 발령 사실, 발령 시간, 경보 단계, 시민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대기질 정보 SMS 신청’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보건환경연구원 (062-

/김재정 기자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매일신문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 복사기
- ▣ 컴퓨터
- ▣ FAX
-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 전산소모품
- ▣ 레이저(토너/드럼)
- ▣ 각종 잉크류
- ▣ 복사용지
- ▣ 팩스용지
- ▣ 임대
- ▣ 판매
- ▣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062)222-1095, 1096